

영주·봉화 과수농가 규모화에 16억 원 지원

윤애옥 기자 | 승인 2026.09.10 14:04 | □ 호수 1077

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과원규모화사업 추진 64세 이하 과수농가 등 대상...매입·임대 지원

영주와 봉화지역 과수농가가 과수원을 사거나 빌려 영농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16억 원이 지원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조정옥)는 과수농가의 규모 확대와 집단화를 돕기 위해 농지은행 과원규모화사업비 16억 원을 확보해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과수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등록된 64세 이하 농업인과 2030세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다.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나 새로 조성할 과수원이다.

과수원을 매입할 경우 실제 이용 현황이 과수원인 농지에 한해 3.3㎡당 2만 원(평당 6만 6천 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연 2%이며 11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과수원을 빌릴 경우 임차 기간은 5~10년이다. 임대료는 지역표준 임차료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하며 농어촌공사가 임대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한다.

조정옥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장은 “영주, 봉화지역은 사과 등 과수 농사가 활발한 만큼 과수 농사를 희망하는 농민들의 영농 기반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과원규모화사업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농지은행관리부를 방문하거나 대표전화(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윤애옥 기자 gk6923@hanmail.net